

시도연구원 해외연수 보고서

1. 일 시 : 2007.5.21-2007.5.31

2. 연수지 : 일본, 미국

- 일본 : 마쿠하리, 재단법인 지방자치 연구기구(동경), 미쯔비시경제연구소, 일본지역개발사례 등

- 미국 : 팜스프링스,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3. 연수자 :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4. 출장결과 및 시사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 및 농업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 일본 마쿠하리 멧세(MESE) 및 컨벤션센터

▶ 일반개요

- 평성 원년(1989년) 멧세 오픈 이래 일본IBM, BMW, NTT, 후지쯔, 샤프, 세이코, 월드비즈니스 가든 등 300여 개 회사가 입주함.
- 마쿠하리 멧세는 평성 9년(1997년) 국제전시장 11개 홀이 오픈하여 컨벤션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전체 메세 수입금은 년 약 47억 엔
- 회의장, 이벤트홀, 레스토랑, 매점, 비즈니스센터를 직영하여 수수료 수입
- 정규직원(약 40명) 이외는 거의 외주로 운영
- 외국투자유치는 없고, 담당자의 자료로는 흑자라고 하지만 경영에

매우 어려움이 보임.

- 향후(약 2년 후) 동경에 컨벤션센터 설립 시 동경과 인근한 마쿠하리컨벤션센터는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시사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건립 시부터 도민주와 중앙정부, 지자체 자본으로 출발함으로써 도민주에 의해 설립이 추진된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음.
- 타당성분석에 의하면 향후 면세점, 카지노, 케이블카 등 수익사업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 앞에 거론된 수익사업은 전무한 실태임.
- 개원 초기부터 이러한 수익사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예상하였고, 그 결과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
- 최근에 면세점 도입추진과 회의산업 확대 등을 자구책으로 모색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이러한 브랜드와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최고의 회의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성공한 컨벤션센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미국 팜 스프링스

▶ 일반개요

- 캘리포니아 팜 스프링스는 면적 246.3km², 인구수 45,731명, 인구분포는 주로 백인 78.3%(흑인 3.9, 원주민 0.9%, 아시아인 3.8%, 하와이인 0.14, 라틴 9.8, 기타 3.1), 연평균 기온 23℃로 온난하면서 건조한 기후, 연평균 강우량 150mm 정도임.
- 역사적으로 보면,

- Cahuilla 부족을 비롯한 7개의 인디언 부족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나, 1853년 정부조사팀에 의해 광천수와 야자나무 숲이 발견됨으로써, 관광지로 개발이 시작됨.
- 미네랄 온천수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최초의 호텔이 1886년 건립되었고, 1938년 시정부가 통합·설립됨으로써 팜 스프링스 도시명이 사용됨.
- 1967년부터 건설개발붐이 일어나 호텔과 주거지가 개발되어 온천휴양지인 겨울 리조트 도시로 각광을 받음.
- 그러나, 최근 온천휴양지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황무지 사막을 개간하여 골프장들을 조성하고 있으며, 카지노 유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 LA지역과 팜 스프링스사이에 대단위 풍력시설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미래지향적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 사례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시사점

- 제주지역은 60-70년대 제주관광개발을 봄으로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최근 개방화와 안주로 인해 관광경쟁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다양한 국제관광 경쟁력 강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관광비용 상승과 더불어 항공기 좌석난 등으로 제주를 찾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 실정임.
- 팜 스프링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온천을 통한 리조트 조성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새로운 관광정책을 도입하는 것과 같이, 제주지역도 항공기좌석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관광객들의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정책을 수립해야만이 제주관광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주지역도 현재 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청정 무공해지역이라는 제주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풍력시설을 가동 또는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LA지역과 팜 스프링스 사이에 대단위 풍력시설 (약 200만 개)은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미래지향적 친환경에너지 활용이라는 점에서 제주지역에 많은 시사점을 줌.

□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벨리

▶ 일반개요

- 포도주의 마을로 알려진 나파벨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신록이 우거진 평화스러운 전원 도시인 나파벨리는 130여 개의 크고 작은 와인공장들이 포도밭 사이에 널려 있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한 좋은 사례였음.
- 가까이에는 화산재를 이용한 자연온천인 Mud Bath가 있어서 방문한 후 온천욕을 즐길 수도 있으며, 특히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음.
-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방문하는 와이너리에서 무료로 와인을 시음할 수 있고 포도밭 사이의 와이너리를 찾아다니면서 전원 생활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이기 때문임.
- 또한 와인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소득창출과 더불어 와인과의 연계한 차별화 모색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시사점

-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상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2005년 기준 약 18%와 79%를 차지하는 만큼 1차와 3차 산업의 연계는 매우 중요함.
- 제주지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감귤주산지로 유지하여 왔으나, 와인벨리와 같이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1차와 3차 산업을 연계한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와인벨리는 좋은 벤치마킹 사

레이.

- 따라서 감귤생산도 중요하지만 와인벨리와 같이 다양하고 고부가가가치가 있는 상품개발과 제주지역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어메니티 구축을 통한 틈새산업 전략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미국 실리콘밸리

▶ 일반개요

-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은 1971년에 지어졌으며, 반도체 산업이 근간을 이루던 때, 이곳에서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칩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임.
 - 그러나 실리콘밸리는 이름처럼 골짜기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실리콘밸리의 북쪽으로 샌프란시스코 만(bay)에 닿는 평탄한 곳과 산호세를 끝으로 하는 남쪽은 약간의 언덕처럼 보일 뿐임.
 - 실리콘밸리는 엘 카미노 리얼(El Camino Real : 실리콘밸리를 관통하는 도로이름)을 타고 스텐포드 대학이 있는 팔로알토부터 시작해 휴렛팩커드가 있는 마운틴뷰, 애플이 시작됐던 로스 알토스, 현재 애플 본사가 자리한 쿠퍼티노, 인텔이 있는 산타클라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산호세를 잇는 길이 30마일(약 50Km), 폭 10마일(약 16Km) 크기의 길쭉한 모양의 땅으로 되어 있음.
 - 실리콘밸리는 지금은 모든 종류의 하이테크 산업이 들어와 있지만, 초기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그 중에서도 세계 1위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가장 대표적이며,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실리콘이고, 우리말로써는 규소라고도 함. 이 실리콘을 이용한 반도체 산업이 크게 발전한 지역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게 된 것임.
 - 원조 인터넷 업체들 역시 실리콘 벨리에 상당수 진출해 있는데, 마운틴뷰에 넷스케이프, 산타클라라에는 야후, 레드우드에는 베리폰,

쿠파티노에는 PCN으로 유명한 포인트캐스트사, 팔로알토에는 커머스넷 등 그밖에도 수없이 많은 벤처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음.

- 또한 이민 기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는 실리콘벨리로 52%(뉴욕 43%, 시카고 3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선호도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실리콘벨리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보면, 기후조건+독특한 상법+스텐포드 대학의 관심+주정부의 지원 등임.
- 우선은 기후조건을 들 수 있는데, 실리콘벨리 인근은 기후가 매우 좋은 데가, 여름철에 습도가 높지 않아 먼지와 습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자기기(반도체, 서버 등등)가 오작동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
-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독특한 상법에도 기인함. 캘리포니아주 상법에는 회사가 파산, 부도가 났을 경우 경영자, 창업자들이 명명백백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즉 회계부정이라든지, 공금유용이 아니라면 개인의 재산은 철저히 보존해 주고 있음.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재기가 가능함.
- 미국 벤처캐피탈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실리콘벨리에 개발을 지향하는 우수한 두뇌(스텐포드 대학을 중심으로)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그만큼 자본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시사점

- 제주지역 산업구조는 2005년 기준 1차산업 18.4%, 2차산업 3.1%, 3차산업 78.6%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위치는 매우 미미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4+1'(관광, 친환경 1차산업, 교육, 의료+첨단산업/BT·IT·ET·CT)을 중심으로 산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도모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첨단과학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중에 있으며, 하이테크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 등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지역 환경 특성상, 첨단산업 유치는 실리콘벨리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면, 환경·의지·인적자원·제도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안 될 경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시사점이 내포됨.

□ 미국 라스베이거스

▶ 일반개요

- 미국 네바다주(州)의 남동부 사막 북판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47만 8,434명(2000)이며, 관광과 도박의 도시로 네바다주 최대의 도시로 알려짐.
 - 1700년대 초에 에스파냐인들이 부근 지역을 발견하였고, 1855년경에 모르몬교 지도자 브리검 영(Brigham Young)이 파견한 30여 명의 교도들이 요새를 지었으나 1857년에 인디언들이 파괴함.
 - 에스파냐어로 '초원'이라는 뜻의 지명은 라스베이거스계곡을 처음으로 발견한 에스파냐인들이 지은 것임.
 - 19세기 말까지는 소규모의 광업과 축산업을 하는 마을이었으나, 1905년에 남 캘리포니아와 솔트레이크시티를 잇는 철도가 완성되면서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1911년 3월 16일에 시가 되었음.
 - 1936년에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후버댐이 완성되고, 도박장이 늘어나면서 관광·환락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어 네바다주의 최대 재원이 되었고, 연중무휴의 독특한 사막휴양지로서, 고속도로 연도에는 호화스런 호텔·음식점·공인도박장 등이 즐비하며, 야간에도 관광객으로 성황을 이루어 '불야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음.

- 최근,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gambling 도시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관광 리조트 도시로 변모하는 전략을 세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
- 라스베이거스는 두 번 이상 방문하는 반복형의 여행자가 많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관광객중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은 불과 20%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과거 5년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평균횟수는 5.3회였음.
-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는 20세기 후반부터 최고의 관광리조트, 즉 데스티네이션 리조트(Destination Resort ; 방문객 중 관광객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리조트 관광지)로 불리게 됨.
- 현재 라스베이거스의 연간 관광객수는 3,850만 명(2005)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해 9월 22일부터 대한항공이 라스베이거스 직항편을 개통하여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음.
- 실제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돈을 따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고작 4%에 불과하고, '즐거움을 위해'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서 2002년에는 79%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있음.
- 라스베이거스에 인구가 유입되고 조그만 도시를 형성한 것은 불과 10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지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도시가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시사점

- 라스베이거스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최대의 관광과 도박의 도시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지역을 방

문하는 외국방문객수가 연간 4,000만 명(2006년 기준)을 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보통 한호텔 객실 수가 보통 5,000객실이 넘고 있으며, MGM H/T, 미라주 H/T, 벨라지오 H/T, 뉴욕 H/T 등과 더불어 베네치아 H/T는 그 규모를 제주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수는 약 5,020천 명(2005년 기준)으로 이중 외국관광객수는 약 379천 명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외국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의 국내 최대관광지로의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제주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항공기 좌석난과 제주관광요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등을 원할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또한 후버댐의 물과 전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현재 20% 사용)과 인간의 심성(도박과 오락 등)을 연계한 라스베이거스 유형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제주 특유의 오밀조밀한 자연과 친환경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차별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이며, 무엇보다도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마인드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자료사진 >



☞ 일본 마쿠하리 멧세 및 컨벤션센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비교)



☞ 일본 하우스온주밀감(개당735¥
감귤도 있는 것이 인상적임)



☞ 머스크메론(최상품은 개당 1만 엔 이상)



☞ 팜 스프링스인근 대단위 풍력단지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단지(비교)



☞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농장(1차·2차·3차산업 연계 사례)



☞ 포도원



☞ 와인브랜드를 상품화한 다양한 제품들-1



☞ 와인브랜드를 상품화한 다양한 제품들-2



☞ 와인브랜드를 상품화한 다양한 제품들-3



☞ 포도관광농원 주변환경



☞ 실리콘벨리에 두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



☞ 실리콘벨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 라스베가스 관광유형과 대규모 호텔



☞ 파리를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



☞ 인상 깊은 베네치아 호텔



☞ 샌프란시스코에 자리잡은 한국인 식당